

# 평화통일과 남북 기독교인의 역할

-초기 기독교평화통일운동을 중심으로

김석주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 I. 들어가는 말

‘민족의 분단’이라는 현실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당위적 현실이고 ‘민족의 통일’이라는 염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당위적 염원이라면,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일원인 남북 기독교인 역시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아래서 이 권리와 책임을 일찍이 자각한 해외 한인교회와 남한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일부 특정 교단이나 특정 기독교인들의 반대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든 교계(남한교회와 세계교회를 포함하여)를 대표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북한교회를 방문하고 남북한교회가 서로 상봉하면서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라는 민족적 과업의 실천에 선봉이 되었으며, 다른 계층과 직능에 속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분단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예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20세기 후반 불모의 평화통일운동의 발을 일군 일련의 사람들은 바로 이 남북의 기독교인이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일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억 역시 희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 평화통일운동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몸소 실천했던 이들 남북의 기독교인을 재조명하면서, 다음 세대의 평화통일신학 교육에도 유용하게 쓰일 그 업적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거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sup>1)</sup>

## II. 조선기독교도연맹(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통한 북한교회 이해

1980년대 북한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와 가장 늦게 1988년에 결성된 조선천주교인협회 등 모두 4개의 종교단체가 있었다. 이중 조선기독교도연맹은 그 전신(前身)이 북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1946년 11월 28일 결성되었다. 1949년 평양에서 발간된 『중앙년감』에 따르면 동연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박애적 원칙에 기초하여 인민의 애국열을 환기하며 조선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건국사업에 일치 협력할 것.

둘째, 민주조선 건국에 해독인 죄악과 항쟁하고 도의(道義)건설을 위하여 분투할 것.

셋째,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

넷째,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

1) 작금의 한반도 평화통일신학은 당위론적인 이론신학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이런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그런 평화통일신학의 실천의 장, 실천의 역사도 계속 기록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1970년대까지 조선기독교도련맹은 상부조직만 있는 단체로서 남한에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서 정도를 발표하곤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개방정책에 따라 동련맹은 새롭게 활기를 찾고 조직을 강화하여 점차적으로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10개 특별시·도와 50개 시·군에 지방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은 1만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6천명 정도가 동련맹에 가입하여 자신의 한달 수입 가운데 2%를 련맹비로 내고 있다.

당시 북한 및 북한교회를 방문했던 캐나다교회협의회 대표들은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조선기독교도련맹의 조직 목적을 동련맹의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둘째, 사회단체나 정당들과의 친교를 맺는다.

셋째,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참여한다.

넷째, 조국통일을 위해 일한다.

다섯째,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전세계의 모든 개인 및 조직과의 접촉을 가진다.

여섯째,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조선기독교도련맹은 1980년도 이래 몇 가지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의 교회를 방문하고 다섯 차례(1981, 1982, 1984, 1990, 1991)의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대화” 모임,<sup>2)</sup> 1985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기독교평화협의회(CPC) 총회, 네 차례(1986, 1988, 1990, 1995)의 글리온 회의 모임,<sup>3)</sup> 세 차례(1990, 1991, 1992)의 북미주 기독학자회 모임,<sup>4)</sup> 여덟 차례(1990, 1991,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의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 모임<sup>5)</sup>에 동련맹의 이름으로 참석한 것이 그것인데, 이는 조선기독교도련맹의 다섯째 목적에 명시된 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1983, 1984년에 신·구약성서와 찬송가를 발간한 것과 1988년 11월 6일에 평양 봉수교회, 1992년 11월 22일에 평양 칠골교회를 신축하여 문을 연 것이다. 조선기독교도련맹은 1983년 신약성서와 찬송가를, 1984년에는 구약성서를 1만여 권 교인들의 헌금으로 발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신·구약성서는 구약은 남한의 공동번역 성서를, 신약은 남한의 새번역 성서와 공동번역 성서를 다만 북한의 문화어(文化語)에 맞게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찬송가도 193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발행한 『신편 찬송가』를 문화어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 1. 북한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는 12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과 1,400개에 달하는 교회가 있었다. 인구 40만이었던 평양에만도 2만여 명 정도의 기독교인과 70개에 달하는 교회가 있었다. 그

2) 이에 대해서는 홍동근, 『홍동근의 나라사랑 교회사랑 1-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서울: 도서출판 형상사, 1994)를 참조하라.

3) 이에 대해서는 형상사 편집부 편,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평양엔 교회가 글리온에선 만남이』 (서울: 도서출판 형상사, 1989)를 참조하라.

4) 이에 대해서는 북미주 기독학자회 편, 『기독교와 주체사상-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기독인과 주체사상가의 대화』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를 참조하라.

5) 이에 대해서는 제일대한기독교회 평화통일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KCCJ-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 평가자료집』 (도쿄: 제일대한기독교회, 2000)을 참조하라.

런데 오늘날 거의가 40대 이후인 1만여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고, 아마도 그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진 예배처소 곧 500여 곳의 가정교회에서 30여 명의 목사와 전도사·집사·장로 등 200여 명의 평신도 예배 인도자에 의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만 평양에 있는 50여 개의 가정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1988년 11월 6일 3백석 규모로 평양시 만경대구역 봉수동에 문을 연 평양봉수교회에는 당시 담임목사인 이성봉(李成鳳)을 비롯하여 부목사 1명, 전도사 2명, 장로 7명이 있었으며, 장로 중 2명은 여성이었다. 또한 1992년 11월 22일 150석 규모로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동에 문을 연 평양 칠골교회에는 담임목사인 류병철(劉秉哲)을 비롯하여 전도사 1명과 장로 1명이 있었다.

평양봉수교회는 1988년 11월 23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한교회의 대표들이 다시 상봉하는 제2차 글리온회의 이전에 교회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11월 6일 주일에 입당예배(入堂禮拜)를 드렸고 그후 지금까지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봉수교회의 첫 예배에는 마침 그때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초청으로 북한 및 북한교회를 공식방문하던 캐나다교회협의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여 그 사실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생생하게 증거하였다. 북한교인 80여 명이 참석한 입당예배에서는 예레미야 31:31-34의 성경말씀을 본문으로 한 조선기독교도연맹 김운봉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11월 한달 동안 봉수교회의 주일예배에는 친지방문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기독교계 출신의 목사와 평신도들이 계속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평양에 봉수교회가 세워진 사실과 1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국내외에 더욱 널리 소개되었다. 특히 그들이 비디오로 촬영한 11월 20일 주일의 추수감사예배 광경은 남한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특집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방영되기까지 하였다.

북한교회는 통상 주일예배만 드린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주일예배는 남한교회와 서방세계 어느 교회에서나 보편화 된 오전 11시보다 한 시간이 빠른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1시까지 드리며, 부활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2시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 등 기타 예배시간은 없다.

예배순서는 예배부름(찬송가 400장 방창), 사도신경통송, 찬송(1백장, 즐겁게 안식할 날), 기도(리회병 장로), 성경봉독(예레미야 31:31-34), 성가대찬양 혹은 찬송(190장, 예수 사랑하심은), 설교(김운봉 목사, 제목: 새로운 계약), 설교 후 기도, 찬송(137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헌금(찬송 328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광고, 찬송(3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축도, 아멘송(방창, 폐회) 등으로서 남한 교회와 대동소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sup>6)</sup> 설교내용도 거의가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것이어서 북한사회 어디를 가나 항상 듣고 보게 되는, '위대한 수령님'이니 '로동당'이니 하는 수식어로 치장된 성동 구호가 없어 서방세계의 방문자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남한교회 출신의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 2. 북한교회의 목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

지금 북한에는 30여명의 목사가 조선기독교도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전쟁 전에 안수 받은 목사는 거의 타계하고, 1974년 이래 동연맹에 부설된 평

6) 괄호 안은 북한교회의 첫 공식예배가 되는 1988년 11월 6일 봉수교회 주일예배의 순서이다.

양신학원에서 모두 7기(期)에 걸쳐 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그중 30여명에게 목사 자격이 부여되어 오늘에 이른다는 것이다. 평양신학원은 지원자들을 그룹으로 입학시켜 3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입학생을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1974년 이래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졸업생만 배출시켰다.<sup>7)</sup>

북한의 목회자들은 대체 무엇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한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확한 실체에 다가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그 설교를 듣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 하여도 여전히 비판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여러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들은 “방문한 그 당사자가 참석한 예배시간에만 그렇게 설교하고 기타 시간에는 주체사상교육이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세 김씨 찬양을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조차 이런 반박을 종종 한다.

여기에도 못 미치지만, 1990년 당시 북한교회의 목사들이 일본, 스위스 등 해외에서 행한 설교를 묶은 책이 국내에서 출판되었다.<sup>8)</sup> 거기에 고기준 목사(당시 조선기독교도연련맹 서기장), 김운봉 목사(조선기독교도연맹 평양시 부위원장), 조길남 목사(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부부장)의 설교 11편이 소개되었는데, 이것들은 북한이 아닌 해외에서의 설교지만 북한 기독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1)”(김운봉), “심각한 경험”(김운봉), “형제와 동족을 사랑하자”(김운봉), “‘예’와 ‘아니’”(고기준), “기독교의 봉사정신”(고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2)”(김운봉), “예수와 민중”(김운봉), “예수의 성취”(김운봉), “본보기 발자취”(김운봉), “모두를 살리는 기쁨”(조길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조길남) 등이다.<sup>9)</sup> 그런데 이 책에 실려 있는 설교들은 성경구절을 토대로 다분히 성경적이며 복음적이기까지 하여 예상 밖이다. 그러나 외세에 대한 언급, 계급의식,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 등 북한 사회체제의 사상적 편린들이 엿보인다.

설교는 주제가 되는 성경구절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설교 중 성경의 인용이 적지 않다. 북한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 “영생의 은총”,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내용이 등장. 남한교회 목사들의 설교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모든 범죄의 근본 유래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sup>10)</sup>고 하여 사탄의 존재를 믿고 있는 듯한 설교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시각이 표출되기도 한다. “소유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 계급으로 갈라진 이후 인류역사는 피로 얼룩진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근로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로 “근로대중을 떠난 인류역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11)</sup> 계급의식과 관련, 김운봉 목사는 “예수는 민중의 주님이며 예수가 함께 하신 것은 언제나 민중이었다”며 민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민중이란 가난한 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권력자에게 억압당하는 자, 병든 자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외세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이 땅의 모든 재난은 침략적인 외세와 그의 노복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에 의

7) 1990년대 말에 문을 닫은 평양신학원 재개원사업을 위해 사회문화협력사업자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대표자들이 2000년 조선기독교도연련맹을 방문한 바 있다.

8) 고기준 외, 『북한교회의 목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 (서울: 도서출판 형상사, 1990).

9) 위의 책, 5.

10) 위의 책, 29.

11) 위의 책, 77.

12) 위의 책, 73.

해 빛어지고 있다”, “민족 안의 어두운 세력들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 대해 ‘아니오’하는 대신 오히려 자주와 해방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비난하는 콘크리트장벽에 대해서도 “마의 장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sup>13)</sup>

### III. 1980-90년대 기독교평화통일운동과 남·북 그리스도인의 역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기독교계 출신의 많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가족과 친지를 상봉하고 관광도 하였다. 그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몇몇 방문은 북한교회의 형편을 교계에 알리고 남북한교회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1981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도 만났던, 조국통일촉진회의 회장이며 미국한인교회연합회의 고문인 김성락 목사의 방문은 특기할 만하다.

그는 북한방문에서 돌아온 후 독일의 이영빈 목사, 이화선 목사, 미국의 선우학원 교수, 강위조 교수, 홍동근 목사 등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를 시작하였고, 그 대화의 제1차 모임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1981), 제2차 모임은 핀란드의 헬싱키(1982), 제3, 4, 5차 모임은 다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1984, 1985, 1986), 제6차 모임은 다시 핀란드의 헬싱키(1990), 제7차 모임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1991)에서 10년 동안 지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남한교회 출신의 기독교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인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분단의 장벽을 깨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화해운동에 참여하도록 박차를 가하였다.<sup>14)</sup>

해외에서의 이러한 방문과 모임들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를 이루려는 교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9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5년 2월 온양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4회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그해 5월 정부 당국의 방해와 탄압을 무릅쓰고 제1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협의회가 “정의·평화·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한국기독교계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세계교회도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정의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숙고하게 되었는데, 시발점이 된 것은 1983년 여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총회와 1984년 가을 일본의 도쿄 근처에서 열린 도잔소협의회였다.<sup>15)</sup> 특히 도잔소협의회 이후에 세계교회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조선기독교도련맹의 초청을 받아 여러 차례 북한 및 북한교회를 방문하였으며, 여기에는 상당수의 한국기독교계 출신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동행하였다.

남북교회와 세계교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연대와 교류는 크게 결실을 맺어, 1986년 9월과 1988년 11월 남북한교회가 스위스 글리온(Glion)에서 공식적으로 상봉하기에 이르렀다.<sup>16)</sup> 그리고 1988년 제2차 글리온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의 길로 나아갔다. 1989년 4월에는

13) 위의 책, 55.

14) 홍동근, 『홍동근의 나라사랑 교회사랑 1-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25-30.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36-44.

16) 위의 책, 61-64, 147-148.

미국교회가 주선한 워싱턴회의에서 남북의 기독교자들이 다시 만나 해외동포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해 9월에는 일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제2차 글리온 회의와 일본교회협의회 주최의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남북 기독교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서 만나자는 합의를 본 것이다.

일본교회협의회 주최의 모임에서 1990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 조선기독교도련맹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평화통일협의회를 통하여 1995년을 향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동작업으로 전개할 것을 논의했다. 만약 1990년 2월에 남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6월말까지 제3국에서 모임을 가질 것을 협의했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2월의 북한 기독교인들의 남한 방문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 도쿄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주관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개최지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 도쿄이고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주최하였지만, 여기에 북한의 조선기독교도련맹이 응하여 남북의 기독교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때까지 세계교회협의회나 세계 각 교회가 주최하는 모임에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또한 외국어와 한국어간의 통역을 통하여 교류했기 때문에 의견교환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통역 없이 우리말로 평화통일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진전이였다. 그리고 남북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를 비롯하여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이 100여 명 모였다고, 무엇보다도 남한 교회의 주요 교파와 교회 대표자가 많이 참석한 것은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sup>17)</sup>

### 1. “비엔나·헬싱키 그룹”<sup>18)</sup>의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통일대화 10년의 공헌과 한계

남북한교회가 스위스 글리온에서 1986년 9월과 1988년 11월 두 차례 공식적으로 상봉하기 이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인식과 신념에서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첫째, 한반도에 다시 골육상쟁(骨肉相爭)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둘째, 우리 민족의 분열과 조국의 분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7·4공동성명에서 밝혀진 대로 자주적, 평화적 그리고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불행한 일이며, 이 불행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대화뿐이다. 또한 북에 기독교를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홍동근 목사에 의하면,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 열 차례 지속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네 차원으로 발전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첫째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로서 양측의 기독교자들이 주도하는 통일대화이다.

그래 주제도 “기독교자간의 대화” 또는 “기독교신자간의 대화”라고 하고 비엔나(1981)와 헬싱키

17) 이에 대해서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총회 남북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서울: 도서출판 형상사, 1990)를 참조하라.

18)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가 주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비엔나·헬싱키 그룹”이라고 통칭하였다.

(1982)에서 모였다. 100명 규모의 대회였다.

둘째로, “학자간의 대화”라 하여 보다 깊이 전문적으로 통일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소수의 학자들이 평양(1983), 북경(1984)에서 모였다.

셋째로, 이제 기독교자들을 넘어서 북과 해외동포 모두를 망라하는 회의로 “대표자학대회의”, “민족연합회의”를 모였다. 여기 기독교자와 비신자동포가 모두 대표가 되어 대화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자가 대표의 80%를 차지하였다. 비엔나(1984, 1985, 1986)와 헬싱키(1988)에서 4회 모였다.

넷째로, 숙원인 바 “북과 해외와 남”의 전동포를 포용하는 통일대화를 모색하여 헬싱키(1990)와 프랑크푸르트(1991)에서 모였다. 생각하면 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길고 먼 통일의 여로였다.<sup>19)</sup>

그런데 그 대화 모임을 평화통일과 남북 혹은 남·북·해외 기독교인의 기독교평화통일운동으로 한정시킨다면, 북과 해외동포 학자간 대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1983년 평양학자대회와 1984년 북경학자대회와 1988년 헬싱키학자대회,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의 제1차 대표자회의인 1985년 비엔나대회와 제2차 대표자회의인 1986년 비엔나대회 등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1차 통일대회(1981년 비엔나), 제2차 통일대회(1982년 헬싱키), 제3차 통일대회(1984년 비엔나), 제4차 통일대회(1990년 헬싱키), 제5차 통일대회(1991년 프랑크푸르트)로 재정리하여 거론하려고 한다.

#### (1) 다섯 차례의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

198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린 제1차 통일대회에는 북한측에서 허정숙, 염극렬, 전금철, 김득룡, 고기준 등이 참석하였고 해외동포·기독교자로서 최덕신, 최홍희, 최정렬, 이화선, 이영빈, 선우학원, 강위조, 최도식, 전충림, 강원진, 김윤하, 이선주, 임민식 등이 미국, 캐나다, 서독, 덴마크, 영국 등지에서 참석하였다. 모두 100명 정도가 모였다. 대화 모임의 주제가 밝힌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자들과의 모임이다. 그래서 먼저 예배로 통일대회를 개회하였다: “민족분단 이후 처음 가지는 역사적인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합동 예배이다. 북의 공산주의자들도 함께했다. 이화선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363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를 합창하고 최정렬 여사가 기도드렸다. 이 목사가 로마서 8:18-22을 읽고 개회사 겸 설교하였다.”<sup>20)</sup>

토론된 내용은 “분단 역사에 있어서의 기독교자의 책임”, “조국 통일과 외세”,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과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민족적 과제”라는 주제들이었다.

1982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제2차 통일대회에는 북한측에서 양형섭, 허정숙, 김득룡, 전금철, 고기준 등이 참석하였고 해외동포·기독교자로서 김성락, 차상달, 최덕신, 강위조, 최홍희, 박성욱, 강광석, 이영빈, 선우학원, 최기환, 송석중, 안병수, 홍동근 등이 참석하였다. 제1차 때처럼 100명 정도가 함께 하였다. 토론된 내용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김대중 선생의 석방”, “주체 사상과 조국 통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주제들이었다.

1984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린 제3차 통일대회는 제

19) 홍동근, 『홍동근의 나라사랑 교회사랑 1-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31.

20) 위의 책, 33.

1, 2차의 “기독자들간의 대화”를 조금 확대하여 북과 해외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하는, 그러나 기독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을 목적하는 새로운 단계의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참가자들은 북에서 40명, 북미주에서 33명 등 모두 90명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그때까지 세 차례에 걸쳤던 통일대화를 총괄하는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동북아시아 정의구현을 위한 도오교회의(1984년 11월 2일) 결의를 환영하며, 그 결의에 따른 한반도내에서의 평화, 정의, 통일구현을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하여 성원을 보낸다.
2. 남과 북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세계교회협의회, 미합중국교회협의회 및 해외동포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상호 방문과 교류와 대화를 촉구한다.
3.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단체들, 특히 교회들이 반전, 반핵,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sup>21)</sup>

1989년 3월 25일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것에 고무된 해외동포·기독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기독자들에게 “남과 북과 해외기독자간의 통일대화”를 핀랜드의 헬싱키에서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세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1990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한 대표들이 참가할 수 없게 되어서 “남”을 생략한 제4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대화”가 거기서 열리게 되었다. 참가자로는 홍동근, 강위조, 이영빈, 김순환, 조덕천, 김현환 등 해외통일신학동지회원들을 위시하여 선우학원, 신성려, 양은식, 김운송, 박천흠, 전순태, 김동석 등 해외동포학자가 모였다. 북한에서는 고기준 목사와 이춘구 장로를 위시하여 박승덕, 한시해, 한응식, 김동섭, 로철수 등 기독자들과 주체사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여러 학자들이 왔다. 남한에서 오리라 예상하는 신학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991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지난 10년을 기념하는 제5차 통일대화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다시 한번 남한 신학자들의 참석을 기대했으나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남한의 통일신학동지회가 처음 제의했던 주제인 “독일 통일 이후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방향”을 보다 일반적인 제목인 “조국 통일에 관한 국내외통일문제전문가, 기독자간의 대화 모임”으로 바꾸었다. 남한 대표들이 없었지만 독일에 있는 남한 출신 젊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나름 신선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 (2)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통일대화 10년의 공헌과 한계

통일대화 10년의 길은 “비엔나·헬싱키 그룹” 기독자들에게는 가시밭길이었다. 이민의 땅에서 생활을 위해 수고하며 다른 한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빨갱이’, ‘친북분자’, ‘반국가세력’이라는 남한 정부의 선전 혹은 공격과 미국 정보국의 위협과 유혹도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 초상에도 남한 고향집에 돌아가지 못하거나 교회의 성직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도중에 이 평화통일운동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 홍동근 목사 자신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목회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인권과 민주를 말할 때 200교인이 모였으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설교했을 때

21) 위의 책, 53.



50으로 줄었다.”<sup>22)</sup>

그렇다면 이 “비엔나·헬싱키 그룹”의 통일대화 10년이 우리 기독교평화통일운동에 끼친 공헌과 한계는 무엇이였을까? 공헌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계는 물론 이거니와 남북한 어느 분야에서도 나설지 않았던 당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이들이 몸으로 통일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기독교자로서 비록 해외에 있었지만, 아니 어쩌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과업을 앞장서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조선기독교도련맹과 북의 기독교자들이 북한 땅을 벗어나 해외에 마련된 통일대화의 장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런 경험은 그들이 장차 세계교계나 세계교회협의회, 더 나아가 남한의 교회와 기독교자들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이 통일대화의 간접적인 결과물로 1989년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가 신설되고, 1990년에 홍동근 목사가 이 종교학과의 초빙교수가 되어 역사적으로 북한 사회주의공화국대학에서 기독교신학을 강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3)</sup>

그럼, 거기 문제점과 한계는 없었는가? 물론 여럿이 있었지만, 이것 역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너무 통일대화 그 자체에 몰두해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이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당위적 염원이지만, 통일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선하다는 논리로 전개할 수는 없는 바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통일의 길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인으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리라. 둘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체사상과의 대화의 장을 자주 열어놓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둘 다 심오한 신앙 혹은 학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혹은 연구를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홍동근 목사의 회고에서도 느껴지는 바로, “비엔나·헬싱키 그룹”의 10년 통일대화가 남한은 차지하고라도 해외 이민사회 교회나 기독교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그들만의 평화통일운동’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이 통일운동과 결부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에, 추구하는 바가 대중과 유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추슬러 보아야 할 것이다.

## 2. “기독교자 도쿄회의”의 시작과 경과 그리고 그 실천적 의의

### (1)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의 시작

남북한교회가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 사건은 ‘역사적인 상봉’이라 부를 만하다.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의 성서적·신학적 기반”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WCC-CCIA)의 세미나에 세계 각국에서 22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남한에서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6명과 북한에서 온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 5명(비기독교인 통역 1명 포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상봉은 아니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와 도산소협의회가 있는 후 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세계교회협의회는 북한의 조선기독교도련맹과 접촉을 시도하여 드디어 1985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대표 2명이 북한 및 북한교회를 공식방문하게 되었고, 이어서 1986년 4월에는 미국교회협의회 대표 10명도 남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계기로 1986년 9월 2일부터 3박 4일 동안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계교회협

22) 위의 책, 18.

23) 위의 책, 97.

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주관하에 남북한교회가 제1차 글리온 회의로 상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22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대표는 강문규, 김봉록, 김준영, 김소영, 김운식, 이영찬 6명이었고 조선기독교도련맹의 대표는 고기준, 김재연, 김남혁, 김운봉, 김혜숙(통역) 5명이었다. 당시 남한의 정치상황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글리온회의에서는 남북한교회가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도 채택하지 못하였고, 이 최초의 공식상봉이란 사실마저도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였다.

제1차 글리온 회의 이후 한국기독교계는 남북한교회의 동질성 회복에 대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노력의 결정체(結晶體)로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제37회 총회에서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을 총대들의 기립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sup>24)</sup> 이 선언은 한국기독교계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정지작업(整地作業)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교회도 이 선언을 확고히 지지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세계기독교 한반도평화협의회 메시지”를 발표하였다.<sup>25)</sup>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국내·외의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교회는 1988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글리온에서 제2차 글리온 회의로 다시 상봉하게 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글리온회의에는 남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11명, 북한의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 7명, 한반도 분단에 관련된 동서진영의 나라 교회대표 14명,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관계직원 8명 등 모두 40명이 참가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는 김성수, 장기천, 박봉양, 조용술, 강문규, 이의호, 김석태, 김준영, 김형태, 윤영애, 이효재 11명이었고 조선기독교도련맹의 대표는 고기준, 김운봉, 이성봉, 김남혁, 엄영선, 김혜숙, 이문영 7명이었다.

이 모임에서 남북한교회의 대표들은 모두가 격의 없이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임을 더욱 뜨겁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1988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에서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천명한 바를 그대로 수용하여 남북한교회는 1995년을 해방(解放)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통일의 희년’으로 공동선언하고 매년 8·15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일로 지키며 이 공동기도일에 남북한교회가 함께 드리기로 한 공동기도문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제2차 글리온회의에서는 지난 첫 번째 공식상봉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남북한교회의 동질성 회복에 커다란 전기(轉機)가 될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Glion)선언”과 “한반도(조선반도) 민족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주일 기도문”을 공동 채택하였다.<sup>26)</sup> 그리고 다음부터는 남북한교회의 대표들이 제3국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판문점을 넘나들며 남과 북 어디서나 서로 만나자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2차 글리온 회의 이후에도 남북한교회는 지속적으로 교류의 길로 나아갔다. 1989년 4월에는 미국교회가 주선한 워싱턴회의에서, 9월에는 일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제2차 글리온 회의와 일본교회협의회 주최의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남북 기독교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서 만나자는 합의를 본 것이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102-110.

25) 위의 책, 119-125.

26) 위의 책, 147-149.

다. 일본교회협의회 주최의 모임에서 1990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 조선기독교도련맹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평화통일협의회를 통하여 1995년을 향한 희년의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동작업으로 전개할 것을 논의했다. 만약 1990년 2월에 남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6월말까지 제3국에서 모임을 가질 것을 협의했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2월의 북한 기독교인들의 남한 방문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 도쿄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주관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 (2)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의 경과

제1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는 1990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도쿄의 한국YMCA에서 열렸다. 주최자인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하여 조선기독교도련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감리교(기감), 장로교(예장대신, 예장통합, 기장) 등 남북교회대표단, 해외동포교회,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형제자매가 참석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였다. 4회에 걸쳐서 주제강연과 토론, 3회의 성경연구, 특별공개강연, 세계각지에서 해외동포교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실천보고 등 뜻 깊은 협의회를 가졌다. 두 번에 걸쳐 환영의 만찬회와 교류행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통일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다. 이 회의에서 1988년 제2차 글리온 회의에서 채택한 글리온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선언에서 표명된 1995년 통일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이것을 실천할 것을 밝혔다.<sup>27)</sup>

제2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도 1991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쿄의 한국 YMCA에서 열렸다. 주최자인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하여 조선기독교도련맹, 감리교(기감), 장로교(예장대신, 예장통합, 기장) 등 남북교회대표단, 해외동포교회, 그리고 대한성공회 통일사목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등 기독교 단체들이 참석하였으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sup>28)</sup>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불참하였다. 당시 남북한의 어려운 정치환경을 인정하면서 남북교회는 평화통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확인하여 제1회 기독교자 도쿄회의에서의 “통일 희년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다짐” 중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제7항을 다시금 확인 다짐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자주적 화해와 통일의 노력을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와 신앙연대를 다지는 해외형제자매 교회들과의 지속적인 적극 협력을 다지면서 이행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의 구체적인 실증이고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헌신적인 길임을 확신하는 때문이다.”<sup>29)</sup>

제3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는 1992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잔소에서 열렸다. 주최자인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하여 조선기독교도련맹, 감리교(기감), 장로교(예장대신,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장), 기독교하나님의성회 등 남북교회대표단, 해외동포교회가 참석하였다. 지난 1991년 12월에 남북 정부간에 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27) 제1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에 대해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남북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를 참조하라.

28) 제3차 글리온 회의가 1990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남북의 기독교자들이 모여 9개 항목의 희년 5개년 계획을 합의되었다. 그 중 제6항목에는 남북교회의 대화와 만남을 평양과 서울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후 유감스럽게도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도쿄회의가 앞으로 계속 일본에서 개최되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글리온에서 합의된 남북교회의 한반도에서의 만남을 이유로 내세워 제2회, 제3회 도쿄회의에 회의적이고도 비협조적이었다.

29) 위의 책, 293.

협이,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정치환경 속에서 회의를 열고, 특히 민족 대단결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였다.<sup>30)</sup>

제4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는 19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도쿄의 한국YMCA에서 열렸는데 회의 주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 재일 대한기독교회의 단독 주최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하여 조선기독교도련맹, 감리교(기감), 장로교(예장대신,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등 7개 교단이 공동 주최하게 하였고, 남북교회가 1995년에 회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전개하여온 평화통일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여 그 연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은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공존과 번영의 성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를 만방에 천명하였다.<sup>31)</sup>

제5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는 1996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재일대한도교교회에서 열렸다. 회의 주최는 공동주체인데, 성결교(기성)가 추가되어 8개 교단이 되었다. 조국의 평화와 민족 대단결을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추구하였고 평화통일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또한 이 때까지의 기독교인 도교회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특히 “기독교의 통일운동은 ‘이념이나 사상, 제도,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성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년’(제4차) 운동이며, 민족통일은 ‘어느 한 체계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 공존과 공영을 성취’(제1차) 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sup>32)</sup>

제6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는 1998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재일대한오사카교회에서 열렸다. 회의 주최는 공동주체였다. 이 회의에서는 천년기 곧 밀레니엄을 앞둔 남북교회가 어떻게 21세기 문명사적 전환을 하며, 또 우리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밝힐 것인지 모색하였다 또한 이 때가 통일과 선교를 통하여 민족 생명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 속에 지금까지의 도교회의의 정신과 합의 내용을 계승하여 통일운동은 회년운동이고 상호공존 공영공생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7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재일대한후쿠오카교회에서 열렸다. 회의 주최는 공동주체였다. 이 회의는 6·15남북정상회담이 있는 후 가진 모임으로 남북의 화해의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된 상황에 맞게 남북교회 대표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불기 시작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분단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동안 제3국인 일본에서 개최해 온 도교회의를 남북한내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선기독교도련맹의 강영섭 위원장은 북한교회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북한에는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1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한교회와 세계교회가 보내준 구호물자 덕분에 최근 북한의 교인수가 약간 증가했다고 말하였다.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는 2002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0) 제2, 3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에 대해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남북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한(조선)반도 선교-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서울: 도서출판 형상사, 1993)를 참조하라.

31) 제4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에 대해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남북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서울: 도서출판 형상사, 1995)를 참조하라.

32) 강영일 편, 『제5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교회의 자료집』(도쿄: 7개 교단 평화통일선교협의회, 1996), 98.

지 도잔소에서 열렸다. 회의 주회는 공동주체였다. 이번 회의는 조국통일이 사랑과 화해, 평화의 소명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절박한 선교과제이고 마땅한 사명임을 인정하면서 거래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적극 합류해 나가자고 천명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차기 대회는 한반도 내에서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 (3)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의 실천적 의의

여덟 차례 개최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는 제2, 3차 글리온 회의의 합의사항인 한반도에서의 남북교회의 만남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에, 그것을 빌미로 비협조 내지는 무관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의 도움없이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주체적으로 꾸려나간 1990년대 기독교평화통일운동의 표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자 도쿄회의의 실천적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해외동포교회의 역사적 역할 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일동포를 포함한 해외동포, 해외동포교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거나 생각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 남북의 교회만이 평화통일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자 도쿄회의는 몸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었다. 사실 기독교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 평화통일은 정치과제로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당사자이며 주관자이며 관계자인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자 도쿄회의를 통해서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일본 교계와 사회 안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는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를 교두보 삼아 이 둘을 화해의 자리로까지 견인하였다. 1990년 기독교자 도쿄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조총련 내부에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가 설립되어, 이후 기독교자 도쿄회의에 참석하는 조선기독교도련맹의 대일본 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의 평화통일에 관한 성의를 조총련측도 받아들여, 종래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일신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의 중개로 일본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련맹이 대화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되어 일본의 교회들도 계속해서 북한(공화국)의 교회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교회를 같은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서 온전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북에 대한 식민지의 전쟁책임을 고백하게까지 되었다.

셋째는 기독교자 도쿄회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에 속하지 아니 하는 남한의 교회, 특히 예장합동과 예장고신 등 여러 보수 교단과 기독교인들에게 북한 교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만남이란 지속하다 보면 오해도 불리고 의구심도 가벼워지는 법이다. 물론 이들 교회가 조선기독교도련맹이나 거기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참 기독교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전략적으로만 교류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이런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넷째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그들과 선교협약을 체결한 남한의 6개 교단에게 남북교류와 기독교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 일종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말할 수 있다. 기독교자 도쿄회의는 제1차에서 제3차까지만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단독으로 주최하고 제4차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조선기독교도련맹, 남한의 5개 교단 등 7개 교단이, 제5차에서 제8차까지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조선기독교도련맹, 남한의 6개 교단 등 8개 교단이 공동주최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남북교회의 교류와 기독교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 어떻게 방관자를 당사자이며 주관자이며 관계자로 자

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표가 된다 하겠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2002년 제8차 기독교자 도쿄회의 이후 이 모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시 6·15남북정상 회담과 6·15선언으로 고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차기 대회는 한반도 내에서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은 곧 급변하여 그럴 형편이 못 되었다. 그렇다면 이전 제2, 3차 글리온 회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기독교자 도쿄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자 도쿄회의는 일본에서 계속 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제 훌쩍 12년이 지났다. 다시금 시작하려면 인적 자원, 네트워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어쩌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표본적인 남·북·해외동포 교회의 교류, 기독교평화운동의 바른 본보기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 IV. 나가는 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북의 기독교 교류는 전반적으로 평화통일운동보다는 인도적 지원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로교 주요 교단들(예장개혁, 예장고신, 예장대신, 예장통합, 예장합동, 합신, 기장), 감리교(기감), 구세군, 성결교(기성), 침례교(기침), 기하성, 루터교, 복음교회, 성공회 등 남한의 15개 교단과 YMCA, 월드비전, 남북나눔운동, 사랑의 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평화통일추진협의회, 진주 북한동포후원연합회 등 남한의 10개 단체는 1997년 2월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남한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파와 단체가 북한 혹은 북한교회와의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교류방식과 내용은 조선기독교도련맹과 그 산하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참 기독교 공동체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기독교도련맹을 인정하려는 기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줄곧 조선기독교도련맹만을 대화의 상대로 삼으면서, 장차도 조선기독교도련맹이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기독교도련맹을 참 기독교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 성결교(기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조선기독교도련맹과 전략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가 장차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조선기독교도련맹이 아니라 ‘지하교회’를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예장통합과 감리교(기감)의 태도는 다소 모호하다. 조선기독교도련맹을 공식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33)</sup>

남한교회는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북한 혹은 북한교회에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평화통일 혹은 민족통일을 더 우선시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예전의 북한교회 재건을 중심으로 한 교류를 더 우선시 하는가 하는 것뿐이다. 앞에서 초기 기독교평화통일운동위 역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선기독교도련맹과 그 산하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교회의 실정과 현황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단순히 ‘북한에 교회가 있다. 없다’ 혹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함을 주장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해야 하며,

33) 김흥수·류대영, 『북한 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276-277.

어떻게 해야 그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은 변하고 있다. 종교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92년 개정 발표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반종교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했고 그 대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제68조).

역사의 주재주(主宰主)이신 하나님과 능력의 영(靈)인 성령이 남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에서도 살아 역사하심이 사실일진대, 북한당국이 아무리 교회와 기독교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도 ‘신앙은 사상과 이념을 넘어 결국 승리하리라’함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방세계와의 교역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기독교인들을 기만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조선기독교도 연맹과 평양봉수교회·칠골교회를 존치시키고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 아니라 성령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5백여 가정교회에서까지 강하고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